

월/요/광/장

이정애



지구촌 곳곳이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신음하고 있다. 여름엔 북미에 살인적인 더위, 중국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겨울엔 유럽의 폭설로 공항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큰 이변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여름은 기록적인 무더위, 집중호우로 인한 잦은 홍수가 일어나고, 겨울은 전에 없는 한파와 폭설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굳이 기상이변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인간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개발자주의로 인한 생태 환경의 파괴, 도시화로 인한 주거 및 생활환경의 오염 등 이제 지구 전체가 인간이 살수 없는 땅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인류역사

상 처음으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구촌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내용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적용되면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한창한 도로가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약간 못 미치는 곳에 시동을 켜놓고 약 10분 정도 음악을 들었다.

B씨는 그 뒤에 차를 세우고 재빨리 달려가 1분 만에 커피를 사운 뒤 바로 차를 운전해 갔다. 그런데 둘 모두 주정차위반고지서를 받았다. 억울하다며

환경이 곧 미래다!

지, 교통, 쓰레기 부분에서 커다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첫째, '에너지 절감 정책'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건축물 보급, 절전유도 전력요금제도 도입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교통 정책'은 도심에 자전거 도로망과 대중 교통망을 확대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도심 상가는 상품반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셋째,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 제로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규제화된 재활용병 사용, 페트병 사용금지, 공공행사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및 상품 포장용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다. 단순히 쓰레기 줄이기보다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생산소비구조를 구축하고, 쓰레기는 기계·생물분해방식을 도입하여 처리하는 등 다이옥신을 발생하는 소각처리 문제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

독일의 도시 '프라이부르크'가 세계적인

인 환경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좋은 정책의 결과만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은 단기간 계획될 수도 실행될 수도 없다. 시 당국과 시민 그리고 환경 단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환경문제에 대해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속에서 시민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지지하고, 시 당국은 환경최우선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의 현상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어메니티(amenity)를 지향하는 녹색도시 광주의 미래를 꿈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환경은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어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광주를 물려 줄 의무가 있다. 환경을 소홀히 하여 잃게 되는 것은 객체로서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깨달아야 한다.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는 우리 스스로의 후손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길이며 또한 물질 위주의 문명을 생명 위주의 문명으로 돌릴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대의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강세빈



이야기 하나. 친구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도가 나타나 돈을 내놓으라며 흥분을 들이댄다. 이때 겁을 먹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10만원을 건넨다. "지금 기어오르네. 내가 저번에 빌린 돈 있지? 지금 갚겠네?" 우리의 친구는 이 돈을 받아야 할까?

이야기 둘. 친구 한 사람이 다른 친구로부터 한 달 후에 갚기로 하고 100만원 빌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었다. 이에 채권자인 친구는 매일 전화로 돈 갚으라며 소리를 질렀다.

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상식'이라는 기준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적용되면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한창한 도로가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약간 못 미치는 곳에 시동을 켜놓고 약 10분 정도 음악을 들었다.

B씨는 그 뒤에 차를 세우고 재빨리 달려가 1분 만에 커피를 사운 뒤 바로 차를 운전해 갔다. 그런데 둘 모두 주정차위반고지서를 받았다. 억울하다며

법과 상식의 상호관계

이에 짜증이 난 친구는 돈을 모두 동전으로 바꿔 가마니에 넣었다. 다음날 채권자인 친구 사무실에 던져두고 나왔다. 우리의 친구는 이 가마니를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받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무내용에 좇은' 방식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값은 시기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서로 약속이 없었다면 돈을 갚는 채무는 원래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강도를 만난 길 위는 채권자의 주소지도 아니고, 적합한 시간도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값은 방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동전 가마니를 받은 친구로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일단 액수가 맞는지 세어 봐야 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이렇게 받은 돈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다시 쓰기도 어렵다. 이는 '상

하소연한다.

이들의 사연을 들은 판사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감은 해도 과태료를 매기는 일은 피할 수 없다.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정차는 5분을 넘기면 성립한다.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곧바로 주차가 된다.

결국 둘 모두 주정차위반이 맞다. 원래부터 '주정차'의 개념은 정책적 목적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의 '상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단속을 안 했으면 어썬든 봐 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분리해 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메일메일 상식과 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판사의 머릿 속에서 이들은 춤추다가도 토라진다. '둘이 늘 끌어 안고 지낸다' 생각하는 일반사람들이 격정될 때가 많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여대생들 취업 '외모 가꾸기' 비용 너무 많이 들어

요즘 대졸자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져 가고 있다. 그중에도 상대적으로 여성 대졸자들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직장 내 여성 직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여성 취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한 여성이 최근 취직시험에서 적성의 외모를 너무 따지는 점을 지적하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25세의 여성 직원이 취직을 위해 캐나다 어학연수 2000만원, 영어회화학원 360만원, 정장과 화장품 구입 등에 30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거기에도 대학교 때 샹거풀과 라식수술을 했고, 정거적으로 다이어트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으면서 4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1년간 투자한 취직비용 내역이었다. 여대생들 사이에 이미 실력이 엇비슷할 경우 결국 면접에서 외모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광배해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대기도 벅찬데 취직을 위해 따로 학원비에도 웃값에다 성형수술까지 내몰리는 우리 여대생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한국에 고개만 저어진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기고

이상길



살날을 맞아 서울의 북촌에 들기회가 있었다. 북촌은 창덕궁과 인사동 이 주위에 위치하고 매들, 옷질, 자수, 한지 공예 등 한국적인 정서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곳이다. 일반 시민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편 지난 달에는 우리 지역 문화산업체에 대한 투자상담을 위해 광주에 들른 외국인들과 같이 자별 기회가 있었다. 일주일 간의 광주방문을 마친 그들은 '집에 돌아가기 싫다. 곧 또 오겠

진 창조도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뉴욕이 문화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그 개방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카페나 레스토랑, 나이트 클럽 등의 공간들이 인접해 있으면서 인종이나 직업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문화 중심지로 기능 하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예술인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레지던시) 사업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광주의

광주의 톨레랑스

다'는 말로 광주를 떠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맛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광주사람들의 환대가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광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세계각지의 사람들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에 모여들면서 동시에 우리 주위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다.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 비엔날레', '광주아트' 행사는 뉴욕이나 파리에서도 보기 힘든 전시회라는 외국인 관람객의 찬사를 받았다.

다른 하나는 광주시의 문화산업 전문업체 유치노력이다. 미래의 영상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가는 특수효과 기술 선두업체들이 광주로 모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 할리우드의 업체도 광주와 100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조기 개관되고 광주 R&D센터, 문화산업투자진흥기구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외국인이 광주에 몰려들 것이다.

이렇듯 사람과 산업체, 자본이 계속해서 광주에 모여들면 풍요롭고 멋들어

임장에서 개방적인 교류 공간의 확보 등 하드웨어 구축은 우선순위로 수락해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소프트웨어 역시 중요하다. 각종 공간을 제출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몫이지만 시민들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마음가짐이다.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개방과 관용이다.

톨레랑스(Tolerance)란 단어 자체로는 '관용, 아량, 온유'라는 뜻이 있는데 서로 상대를 용납하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상대의 의견, 특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해결책 등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이런 톨레랑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폭넓은 사고의 문화와 예술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인권선진국으로서 세계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다.

시민 개개인이 지역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다르더라도 상대를 끌어주는 톨레랑스, 그 정신을 불러 일으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들어섰다.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관용, 아량, 온유의 정신을 우리도 잘 인식해서 '광주의 톨레랑스'를 만들었으면 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시설

광주R&D특구 '독립법인' 출범시켜야

광주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던 광주연구개발(R&D)특구가 대전 대덕특구에 종속돼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에 설치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총괄관리를 맡고 그 산하에 지역분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전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1일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광주R&D특구가 자체적인 사업개발과 예산 확보 등이 가능한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 개정안은 대전 연구개발진흥재단에 광주·대구 특구가 모든 사업과 정책을 보고한 뒤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로 돼 있는 데다 사업평가와 그에 따른 지원도 진흥재단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신생 특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획 및 인프

라 조정 기능을 대전에만 부여한다는 것 역시 신규 특구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지난 10일 광주기술사업화센터에 근무할 인원을 선발하는 등 정부안에 따른 인력 및 조직 구축에 나서 광주특구가 지부로 격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대전 예산을 전제로 한 특구 조성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말 그대로 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독립적인 육성책을 모색해두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전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은 '무늬만 R&D특구'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정부 방침 철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광주특구 독립법안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D특구 마저 대전의 '들러리'로 전락한다면 광주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시한폭탄' 가계빚 급증 방지할 때 아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빚이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고 신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부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22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말 675조9천억 원에 비해 46조9천억 원(6.9%)이 늘어난 액수다. 신용대출이 202조2천억 원(19.4%)이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도 26조9천억 원(9.5%)이나 늘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의 비중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커지는 추세다.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대출에서 8~10등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 말 14%에서 지난해 말 22%로 커졌고, 신용대출은 14%에서 17%로 커졌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이용 금액이 1년 새 15.4% 증가한 가운데 8~10등급 비중은 6%대

에서 8%대로 커졌다. 가계신용의 부실화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금리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2.80%이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3.12%까지 오르면서 CD 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금리가 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도 가계가주부담은 6조 원 이상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더욱 시급하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 가계와 금융권이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선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저금리에 취해 무리하게 빚을 얻은 가계도 상환능력에 맞게 부채 구조조정예 적극 나서야 할 때다.

無等鼓

"아따 겁나게 반갑소. 사람들이 많으께 겁나게 거시기 해보요" 12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야외무대에서는 '제1회 아름다운 전라도 말 자랑대회'가 열렸다. 사투리 경연에는 초등학생부터 60대 노인까지 10여 개 팀이 출전해 전라도의 생활상을 짚어낸 사투리로 표현한 웃음을 안겼다. 재치와 해학이 담긴 '거시기' '아따' '시방' 등의 단어가 무리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를 표현은 이미 전라도만의 것이 아니다. 국어사전에도 여럿이 올라 있는 표준어다.

사투리에는 지역만의 삶과 정서,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지리적 환경에 따른 언어 분화를 보여주는 '지도'이며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주는 여흥행에 성공한 영화 '황산벌'에 이어 '아따 거시기'라는 이름의 펄크 락 인디 밴드가 등장하는가 하면 지역출신 아이돌 그룹들도 TV에 나와 당당하게 사투리 입담을 과시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바야흐로 사투리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열리려나 보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이로 인해 지역출신의 서울 유학생이나 중앙 공무원들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참모하듯 여기고 출신지조차 세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사투리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2010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언 사용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62.0%)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2005년 조사 때 26.3%의 2배가 넘는다.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비율도 47.6%에서 38.6%로 낮아졌다. 질편한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끌어들이는 여흥행에 성공한 영화 '황산벌'에 이어 '아따 거시기'라는 이름의 펄크 락 인디 밴드가 등장하는가 하면 지역출신 아이돌 그룹들도 TV에 나와 당당하게 사투리 입담을 과시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바야흐로 사투리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열리려나 보다.

사투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관	申港樂	편집국장	申康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재무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경명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F A X	
222-8005		222-0195	
광고매체국 2200-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F A X	
227-9500		227-9500	
사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